

寫真技術에 革新의바람

玄 源 福 詠
(科學저널리스트)

企業은 技術開發을 통해 경쟁자들이 쌓아 올린 담을 뚫고 시장을 넓힐 수 있다. 그런데 더 혁신적인 개발을 하면 이런 담을 부스러뜨린다. 그래서 경쟁자들은 市場의 기본성격이 바뀌었다고 인식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담을 다시 쌓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寫真界에서 일어난 사태는 이 두가지 형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동네 사진가게를 찾아가 몇분내에 칼라·슬라이드를 印刷할 수 있는 기계를 일퍼드社가 시험적으로 市販하고 있는 것은 前者처럼 벽을 뚫고 시장을 확장하려는 경우이다.

또 종래의 35밀리미터 카메라처럼 생겼으나 가정의 TV스크린위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電子寫眞을 찍는 소니社의 마비카(Mavica)의 등장은 後者처럼 담을 무너뜨리는 경우이다.

일퍼드社는 스위스의 化學藥品업체의 큰 기업인 시바·가이저社의 산하기업이다. 이 회사는 銀色의 脫色시스템開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종이에 미리 형성된 염료를 짜 맞추어 컬러印刷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그중 일부는 현상액과 종이위의 銀할로겐化合物의 화학작용으로 탈색된다. 사진사가 보는 것에 남은 것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래의 色源시스템에서는 印刷紙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은 銀할로겐化合物, 현상액, 칼플러라고 불리는 화학물의 반응으로 생긴다.

銀色의 脫色시스템은 화학적으로 보다 간단하고 더 안정되었기 때문에 印刷紙의 색깔이 바

래지 않고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 과정으로 나온 사진은 색깔의 대조가 너무 격렬해서 아마추어 市場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지난해 일퍼드社는 이 대조의 강도를 죽이기 위해 새로운 '마스킹' (천연색사진에서 화학적, 물리적방법으로 빛깔을 수정하는 일)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기술적인 진전으로서는 코닥社가 이미 잡고있는 사진처리 시장을 부수기에는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은 일퍼드社는 다이어프린트(Diaprint) 機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15분내에 슬라이드 한장을 5×8 인치나 또는 8×10 인치로 印刷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색깔의 균형과 농도를 조절하고 슬라이드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여 印刷할 수 있다. 일퍼드社에 의하면 이 기계는 이미 선택한 映像이 나타나기 전에 새로운 映像을 선택하고 노출시킬 수 있어 時間當 25~40장의 印刷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계가 나온다면 일퍼드社는 82년 봄에 내놓을 코닥社의 家庭暗室용의 슬라이드印刷 기술과 대항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소니社의 마비카(mavica) 시스템이 불을 붙인 싸움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소니社가 바라듯이 이 스틸·비디오·카메라가 성공한다면 가정오락에서 寫眞적 기습관과 찍는 장소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 같다. 소비자들이 매초 10장의 사진을 찍고 이것을 곧 TV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첫번째의 마비카제품은 대당 900~1,000달러선에서 1983년 시장에 모습을 들어 낼 계획이다.

마비카는 비디오·테이프·레코딩·시스템에 줄을 꽂을 때 家庭用映畫카메라로도 쓰이게 설계되어 있다. 마비카가 작은 스틸寫眞은 電話線을 통해 전송할 수도 있다. 이것은 또 오디오·테이프·레코딩과 연결할 수 있어 적은 사람의 사진 '앨범'에 音樂을 첨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케인·웨버·미켈·허친슨의 윌리엄·켈리와 같은 寫眞分析家들의 눈으로 보면 마비카의 出現의 진정한 뜻은 電子필름을 간단히 지울 수 있고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소비자들이 기술적으로 잘못된 사진이나 또는 기술적으로는 잘된 것이지만 촬영의 대상이 어색한 표정을 짓는 순간 찍은 사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인물사진시장에서 후자의 경우는 큰 매력을 가진다. 켈리는 『사진을 찍을 때 아이들에게 눈을 뜨고 있으라고 타이르기에 얼마나 신경을 씀니까?』고 말하면서 그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비카가 전통적인 사진시장에 대해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사진업체가 주장하는 이유에는 처음에 값이 비싸고 사진의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기술적으로는 짧은 소견일지 모른다.

마비카의 비싼 '電子心臟'은 보통의 TV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의 情報를 기록할 수 있는 빛에 예민한 半導體 칩이다. 소니社가 이 기계를 내놓을 무렵이면 지상에도 電子사진을 印畫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專門家들은 이 기계가 과외의 정보와 電子진단장치를 동원하여 다른 사진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사진을 금년 봄에는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우기 半導體의 歷史로 미루어 볼 때 소니社가 이 장치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하면 單價는 크게 떨어지는 한편 情報 수용능력은 커질 것이다.

확실히 오늘날의 마비카의 전자장치는 빛의 민감성에 있어서 고급필름과 맞먹을 수는 없으나 일부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필름의 기술적인 映像-記錄능력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의 질에 그런대로 익숙해져 있다고 알려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비교는 기술적으로 말할 때 중요한 점을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등장할 세대의 사진가들은 마비카의 사진의 질을 다른 TV사진과 비교할 것 같다.

TV사진들은 흔히 가정으로 방영될 때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마비카는 이런 비교에 있어서 훨씬 유리할 것 같다.

移 轉 案 內

韓國編輯記者會 事務局이 다음과 같이 移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住 所 : 서울特別市 中区 中林洞 441番地
新聞會館 4層 (韓國經濟新聞社 別館)

電 話 : 778-1267番